



↑ 코스피 8801.49 (+13.11)	↓ 코스닥 1026.03 (-24.00)
↓ 금리 (미국 3년) 3.773 (-0.017)	↑ 환율 (원·달러) 1519.00 (+14.70) (2일)



삼성전자 차세대 HBM5 공개 내년 2나노 본격 양산 0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과 위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방송을 보고 있다. /뉴시스

‘與 압승’ 정권 안정·내란 심판 선택... 李 정부 힘 받는다

2026 지방선거 민심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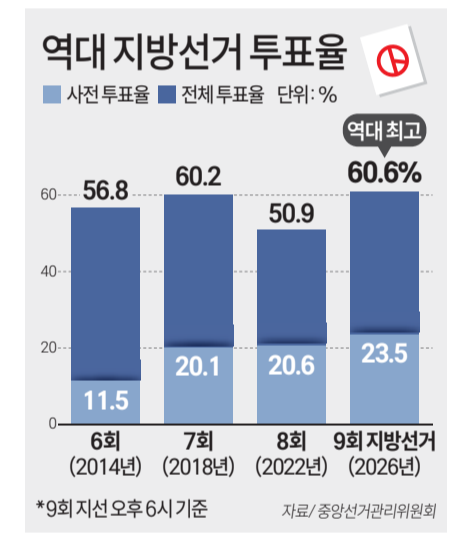
출구조사 민주 11곳, 국힘 1곳 우세 최종 투표율 60.6% 역대최대 기록 장동혁·정청래 지도부 새로운 도전

민심은 ‘정권 심판’ 대신 ‘정권 안정’과 내란 심판’을 선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기념자로 주목받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 따라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에 힘을 받는 것은 불

론, 향후 정국 주도권이 여당 중심으로 강화될 것이라 전망이다. <관련기사 2~4면> 3일 오후 6시 발표된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의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곳에서 우세를 점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1곳에서만 우세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60.6%로 집계돼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 정국 향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증명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추진에 한층 더 강력한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기 초반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다진 여당은 입법부와 지방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며 정국 주도권을 공고히 하게 됐다. 반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마주한 야권은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으나 참패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선거 패배에 따른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당 쇄신을 둘러싼 극심한 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압승을 거둔 여당 내부에서도 축

제 분위기만은 아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는 일부 흠집이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건으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후보가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전략 공천된 부산 북갑 재보궐선거의 경우 기표 막판까지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한 점, 경기 평택을에서 초경합열세로 출구조사가 발표된 점 역시 정 대표에게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젠슨 황, 오늘 입국... 9개 기업 릴레이 회동

내일 SK·LG·네이버 등 총수 만나 로봇·피지컬AI 등 협력 확대 전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1일(현지 시간)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정보 기술(IT) 박람회 ‘컴퓨텍스 2026’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5일부터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릴레이 회동에 나선다. 지난해 방한이반도체 공급망 중심의 ‘간부 회동’이었다면, 올해는 로봇·피지컬 인공지능(AI)으로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 전망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황 CEO는 지난 1일 대만에서 열린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 행사에서 “서울이 원한다면 가까이 GTC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단순 부품 공급처가 아닌 AI 거점으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GTC는 엔비디아가 매년 여는 글로벌 AI 콘퍼런스로, 업계가 AI 산업의 방향을 가늠하는 무대로 꼽힌다. 특히 황 CEO는 한국과의 협력에서 로보틱스를 핵심 분야로 지목했다. 그는 이

발 기업으로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방한의 성격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해 10월 방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 15년 만의 방한이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그의 차근차근 회동이 화제를 모았다. 반면 이번 방한은 별도 외부 행사 없이 한국 파트너사만을 겨냥한 사업 목적 방문이다. 회동이 예정된 국내 기업만 9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 의제도 넓어졌다. 지난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등 메모리·반도체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에 로봇·피지컬 AI, 소버린 AI(국가 주도 AI 인프라)까지 의제가 전방위로 확대됐다. <6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경제지표 개선에도 1500원대 환율 ‘뉴노멀’

한은, 환율 2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하반기 ‘금리 인상’ 원화안정 예고 원·달러 환율이 12거래일 연속 달러당 1500원을 넘기며 1500원대의 고환율이 ‘뉴노멀’이 됐다. 수출액이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넘기고 증시도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두는 등 국내 경제지표가 뚜렷한 호조인 데도 원화는 약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원화값의 약세 요인인 ‘중동사태’가 종결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는 하반기에 환율이 안정될 것이라 분석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 달러당 1516.4원에 주간거래 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보다 12.1원 상승하면서, 4월 2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이날 환율은 12거래일 연속으로 1500원을 넘겼다. 세계 금융위기 당시였던 지난 2009년 기록한 11거래일 연속 기록보다 긴 기간이다.

◆수출·증시 호황에도 환율 ‘역주행’ 최근의 원·달러 환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수출액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수출이 늘어나면 국내로 유입되는 외화도 늘어나는 만큼, 수출 증가는 환율 하락(원화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 산업통상부의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달간 수출액은 877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53.2%나 급증했고, 올해 3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800억달러를 넘겨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급빈도체 호조에 ‘9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국내 증시도 좀처럼 환율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해외 투자자금이 국내 증시로 이동하면 원화 수요가 늘지만, 최근 외국 투자자들이 차익실현과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위해 주식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6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 뽑자”는 말, 특정 진영 유리한 선거운동 아냐 /사진 뉴시스
- ▲“나는 왜 투표용지를 덜 주냐”...투표소 곳곳 소란

- ▲“투표용지에 내 지지 후보 왜 없어” 선거사무원 때린 60대
- ▲“대통령처럼 나도 기표 확인해줘” 투표소서 소란, 40대 수사

-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참가, 희생자 5명 장례 절차 논의 중
- ▲정의연·윤미향 상대 ‘후원금 반환’ 왜 기각됐나...法 “기망 인정 어려워”